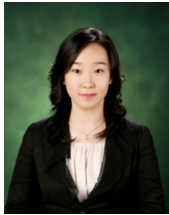


합격기  
(2012년(제56회) 행시 국제통상직 합격)

##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임한 나의 수험생활



유 정 연

- 1996년 1월 생
- 서울 광신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12년(제56회) 행시 국제통상직 합격

### I. 들어가는 말

안녕하세요. 2012년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합격자 유정연입니다. 수기라는 것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4년 8개월간 짧지 않은 수험생활을 하였고 그 중 1차는 4번 응시하여 모두, 2차는 2번 합격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부했던 방식들과 참고하였던 서적들에 대해 과목별로 살펴보고 끝으로는 공부 이외의 전반적인 수험생활부분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 II. 시험 전 준비사항

#### 1. 한국사능력시험

우선 저는 『EBS한국사능력시험1급』과 『한권으로 끝내는 한국사능력시험』 책을 보았습니다. 총 3번의 시험을 봐서 2012년 1월에 겨우 붙었는데 그때는 EBS책을 좀 꼼꼼히 보았습니다. 또한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출문제풀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한권으로 끝내는 한국사능력시험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듯한 다음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기출문제 풀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카페 이름이 한국사사랑방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현대사가 어렵게 느껴져서 지인의 소개로 ebs 인강에 최태성선생님의 근현대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셔서 근현대사는 그 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2. 토익/토플/텝스

토익700고지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림동 단기 토익강의를 추천합니다. 다른 공부 할 것도 많은데 토익만 붙잡고 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짧고 굵게 토익에 집중하시면 분명 700을 넘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어에 자존심 부려서 혼자 할 수 있다! 고집피우지 마시고 한 달만 열심히 학원 다니셔서 영어에 발목 잡히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Ⅲ. 제1차시험 PSAT

### 1. 개 괄

저는 총 4번의 1차시험을 쳐서 네 번 다 합격을 했습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구요. 그만큼 제 공부방법이 성공적이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부 첫해에는 여름부터 PSAT 준비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기본강의 등을 인강으로 들으면서 위밍업을 하는 시기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PSAT에 좋다는 책을 읽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퍼즐과 함께하는 즐거운 논리, 레이먼드 M 스멀리언
- ▶ 생각의 연습, 이관호
- ▶ 과학철학의 이해, 제임스 래디먼

첫해에 비교적 나쁘지 않은 점수로 1차시험을 합격하고는 그 다음해부터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한 후에 PSAT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

니다. 학원에서 모강이 시작되면 세 과목 다 등록을 하고 모강 스케줄에 따랐습니다. 모강문제지는 한번 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는 연필로 문제를 푼 후 채점을 답안지에 하고 그걸 다 지운 후에 모강이 모두 끝나면 조금 묵혔다가 다시 한 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틀린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새로운 문제를 복사집에서 구해다 푸는 것보다 여러모로 더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다 풀어본 후에도 날짜가 남으면 다른 강사의 문제를 구해다 풀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풀고 채점할 때에는 괜찮다 싶은 문제에 크게 표시를 하고 시험 직전에 그 문제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말 모강문제를 100% 활용한 셈이죠.

PSAT스터디를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끼리 이 문제가 틀렸네, 이방법이 옳네 논쟁하시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의미 없는 논쟁으로 공부시간을 잡아먹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최대한 콤팩트하게 스터디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최대한 해설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PSAT강사님들이 강조하시지만,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푸는 방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쉽진 않습니다만..)

## 2. 과목별 공부방법

### ♣ 언어논리

언어부분에 있어서는 위에서 추천한 저 세권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모강문제 등을 통해서 빨리, 정확하게 텍스트를 읽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때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 ♣ 상황판단

퀴즈책을 여러번 읽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법조문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법률특강을 따로 듣기도 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판단은 모르는 문제를 끝까지 잡고 풀어내겠다는 욕심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걸 100점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므로, 아 이거 안되겠다 싶은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셔야 시험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 ♣ 자료해석

생활 속의 연습이 가능한 과목인 듯합니다. 저는 수치나 그래프만 봤다하면 퍼센트 계산이나 증가율 계산 등을 속으로 연습하곤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강문제는 한번 풀고 버리지 마시고 문제 속 표 읽기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하는 종류의 문제는 과감히 넘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저는 20번 정도 짬에 등장하는 문제인 그래프 or 표가 옳게 그려졌는지 고르는 문제를 항상 찍곤 했습니다.

## IV. 제2차시험

가장 피말리는 관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볼기도 어렵고 공부해도 별로 느는 것 같지도 않죠. 워낙 공부량이 방대하다 보니 수험생들마다 자신만의 공부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시험과 관련해서는 제 방법이 꼭 옳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아래의 내용은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제통상직렬이라 행정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영어, 제2외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행정법

의지박약인 저는 학원수업을 따라가면서 진도를 맞추곤 하였습니다. 한 강사님(김기홍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같은 스타일의 수업을 반복적으로 들으니 이해도 빠르고 개념 잡는데 훨씬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교과서 대신 강사님의 쟁점정리책만 반복해서 보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스타일에만 익숙해져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다른 강사님들의 문제를 구해서 풀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해에는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줄은 처음부터 펜으로 긋지 마시고 처음에는 연필로 그으시길 권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바뀌고 밑줄 그을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교과서 내용 중에서도 판례 내용과 문구를 자세히 봐두시면 시험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기출문제 가운데 상당부분이 기존 판례를 변형하여 출제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마지막에 교과서 중 판례부분만 빠르게 스캐닝 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법의 핵심은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답안연습입니다. 특히 답안연습은 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법 순환기간이 아닐 때 50점짜리 답안스터디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6월에는 주 2~3회로 기출문제 스터디를 하였는데 매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기출은 행시,입시,사시) 그리고 강사님의 쟁점정리를 달달 외우고 싶어서 암기스터디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답안을 쓰실 때는 서론과 결론에서도 득점을 할 수 있게 알차고 내실있게 쓰셔야 합니다. 그냥 문제를 옮겨적는 듯한 답안도 많은데 이는 득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설보다는 판례에 더 무게중심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 2. 국제법

저는 국제법을 가장 힘들어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한 강사님(정성주 선생님)의 수업을 꼭 따라갔는데 국제법 수업이 시작되면 위염이 생길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이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너무 모르겠어서 눈물을 떨구던 날이 기억나네요. 그런데 정작 시험에서는 효자과목으로 작용하였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우선 국제법의 핵심은 공부분량을 요령껏 줄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제법은 조문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양을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만큼

만 요령껏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셔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취할 지는 본인의 선택 그리고 강사님의 악센트에 따르시면 얼추 맞으실 겁니다.

조문스터디를 하는 분이 많으실텐데,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한 시험 2~3달 전부터 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여 그리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막 어쩔 수 없이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정도 암기가 되었다 싶은 후에 답안지 작성연습을 하였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조문과 판례명을 쓰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작성 스킬을 기르기 위한 답안 연습이 필요할 테지만 그 역시 암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참! 학원 모의고사에서 받는 점수에는 절대로 연연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틀리게 쓴것, 빼놓고 쓴것 등을 체크하는 것으로 모의고사의 의미를 삼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참, 최고답안이 못 되었다고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최고답안을 한번도 써본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정말 큰 슬픔이었지만 말입니다.

## 3. 국제경제학

가장 드라마틱한 점수성장을 본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시때 27점에서 시작하여(100점만점 기준) 2번 연속 과락을 맞고 이번 시험에서는 초시때보다 점수가 2배이상 오른걸 보면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과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김인준 저만 보다가 마지막해에는 김인준 저와 김신행 저를 함께 보았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크루그먼 저를 함께 꼭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국경기출에서 크루그먼이 엄청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죠.

국경 답안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표현력입니다.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도 어떤 답안을 보면 문체와 표현스킬이 매우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답안지작성연습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 최고답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괜찮은 문구는 따로 정리하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통상직 분들 중에 국경 때문에 경제학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경제학을 알면 국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공부해야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저는 대학시절 미시와 거시를 들었는데 수험생활 이후에는 따로 이를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막히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행이나 재경직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머지는 그냥 과감히 패스했습니다.

스터디는 주말을 이용하여 기출문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국경의 경우 기출문제 해설집이 시중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기출문제의 정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하여 니 꾸준히 국경을 잡고 볼 수 있어서 좋

았던 것 같습니다.

#### 4. 영 어

일주일에 4번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스터디를 수험기간 내내 계속 해왔습니다. CNN영단어와 Writing Start up 을 외워서 단어시험을 10분간 보고 영어 강사님 자료를 그 자리에서 한영/영한번역을 한 후에 이에 해당하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면 딱 2시간정도가 나옵니다. 예습 복습시간까지 포함하면 저는 하루에 거의 4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영어에 투자하였습니다. 다른 논문과목을 하는 중에 항상 영어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셈입니다만, 그래야만 감을 항상 유지하고 실력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5. 제2외국어

저는 중국어를 하였는데 주2회~3회로 하는 번역스터디를 하여 단어시험 보고 그 자리에서 번역해보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이 임박했을 때에는 중국어 과외를 받으며 잘못된 표현이나 문장을 첨삭 받았는데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뒀니뒀니해도 선택과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서 밀리지 않도록 꾸준한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5시간씩을 제 2외국어에 투자하였습니다.

#### V. 제3차 면접

저는 3차면접을 2번 보았습니다. 발표가 나면 바로 행정고시사랑 카페 등을

통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스터디가 조직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사상식을 단기간에 쌓기 위해 여러 자료를 접하고 인성면접 준비를 위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업 면접과 달리 “붙이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이지요. 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만 미리 조금씩 봉사활동도 하고 신문도 읽는다면 면접에 큰 도움이 됩니다.

## Ⅶ. 고시생으로서의 삶

### 1. 잠

3당4락이라는 말은 누가 지어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체질에 맞춰서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저는 잠이 많은 편이라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잤습니다. 대신에 독서실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은 졸지 말고 집중하자는 주의였지요. 잠이 없으신 분들은 큰 고민이 없으시겠습니까만, 자도 자도 졸리신 분들은 7시간까지는 주무셔도 될 듯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잠을 줄이게 되면 공부시간에 능률이 오르지 않아 이도저도 아니게 되니까요. 하지만 깨어있는 시간은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겠지요. 아참! 낮잠은 옆드려서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전 사실 독서실 수면실 애호가였으나 2시간 신나게 자고 나면 기분이 너무 안좋더라고요.

### 2. 슬럼프

고시생이 되면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

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오는 약간의 자극만으로도 쉽게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특히 나보다 잘나가게 된 친구들을 보면 그런 감정이 극에 달하고 공부 이거 뭐 해봤자 점수가 오르지도 않는거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단계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슬럼프 처방책은 시간입니다.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노력을 통해 슬럼프기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증상1 : 실력이 정체기에 빠졌을 때  
장기간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원래 하던 모든 공부방법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노트를 새로 구매한다거나 새 펜을 사는 것도 리프레쉬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새로 구하고 정리 방식을 달리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 증상2 : 고시생활이 답답할 때  
말하자면 놀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을 때 전 자체휴업을 했습니다.(주말예요.. ☹) 잠도 실컷 자고 TV도 실컷 보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기분도 내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는 등 최대한 활자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3일 놀다보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혹시 도움이 되실지 몰라 당일 코스로

바람 쐬고 올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드립니다.

- 단양8경(충주호 유람선)
- 무의도, 실미도
- 한강시민공원
- 경북 예천 회룡포마을
- 충남 대천 해수욕장
- 창덕궁, 낙산공원

## VII. 끝으로

“是亦過矣(시역과의)”. 이 또한 지나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더 큰 목표를 위해 잠시 지나가는 단계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하루 이겨내다 보면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파이팅있게 준비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해방감을 만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저도 했으니까요.^^

부족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시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